Press Coverage

The 15th AMCHAM CEO Servers' Night

Tuesday, June 11, 2019

Table of Contents

The 15th AMCHAM CEO Servers' Night

I. Press Release (2)

1. English Press Release (June 13, 2019)
   Record Number of CEOs Serve Tables for AMCHAM Charity Night

2. Korean Press Release (June 13, 2019)
   역대 최다 기업 CEO 참가, 암참 자선행사에서 웨이터로 변신

II. Coverage (5)

1. The Korea Economic Daily (June 13, 2019)
   자선 모금 나선 암참 회원사 CEO 들 "장학금 모으려 15 년째 '일일 웨이터' 봉사합니다"

2. Seoul Economic Daily (June 13, 2019)
   일일 웨이터로 변신한 암참 CEO… 서빙 수익금 전액 기부

3. Maeil Business Newspaper (June 13, 2019)
   암참 회원사 CEO·대표, 자선행사서 일일 웨이터로 변신

4. Yonhap News (June 13, 2019)
   "웨이터가 된 CEO 들"… 암참, 자선행사 수익 장학금

5. Digital Times (June 13, 2019)
   "CEO 들 웨이터로 변신"… 암참, 자선행사 수익 장학금 기부

AMCHAM Press Release

The 15th AMCHAM CEO Servers' Night

Tuesday, June 11, 2019

AMCHAM PRESS RELEASE	Your Partner in Business since 1953 http://www.amchamkorea.org/

Record Number of CEOs Serve Tables for the AMCHAM Charity Night

-Total of 28 CEOs participated at the 15th AMCHAM CEO Servers' Night
-Raised the largest scholarship funds in AMCHAM History

June 13, 2019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hosted the 15th AMCHAM CEO Servers' Night at the Conrad Seoul on Tuesday, June 11, 2019.

28 CEOs and representatives of AMCHAM member companies gathered to receive dinner service training by hotel staff and spent the evening serving food and drinks to their coworkers, business partners and friends. Hosted annually since 2003 by AMCHAM's charitable arm, Partners for the Future Foundation (PFF), AMCHAM CEO Servers' Night raises scholarship funds for university students from families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This year's event marked as the biggest CEO Servers' Night in AMCHAM history in terms of participants and proceeds.

AMCHAM's Chairman & CEO **James Kim** stated "Tonight's event broke all records and I am proud to say that we have helped to establish a unique and powerful fundraising custom in Korea. It is important to us to continuously actively engage in variou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All proceeds from the event, around USD 65,000, will be donated to the Partners for the Future Foundation to provide scholarships to university students in need.

The participants of this year's CEO Servers' Night included:

No.	Company	Title	First Name	Last Name
1	Partners for the Future Foundation	Chairman	Jeffrey	Jones
2	AMCHAM Korea	Chairman & CEO	James	Kim
3	ABI Korea	Vice President of People	Jongju	Kim
4	Aetna Korea Ltd.	CEO	Damian	Delaney
5	Asian Tigers Transpack Co., Ltd.	CEO & Chairman	Joseph	Song
6	CBRE Korea	Managing Director	Don	Lim
7	Costco Wholesale Korea, LTD.	Country Manager	Mike (Min Soo)	Cho
8	Dell Technologies	President, Dell Technologies Korea	Kevin	Kim
9	FCA Korea	CEO	Pablo	Rosso
10	FedEx Express Korea	Managing Director	Eun-Mi	Chae
11	GE Healthcare Korea, Inc.	President & CEO	Francis	Van Parys
12	General Motors Korea	President & CEO	Kaher	Kazem
13	Grace and Mercy Foundation Korea	President	Young Mok	Kim
14	Harman International Korea, Inc	President / Country Manager	James (Jim)	Park

15	HP Printing Korea	CEO & Representative Director	Jim	Nottingham
16	IBM Korea	President & CEO	Andrew	Chang
17	JCDecaux Korea	President	Jay (Jouyong)	Kim
18	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Korea	General Manager, Johnson Controls Korea	Brad	Buckwalter
19	JS Management	CEO	Jin Soo	Lee
20	Kelly Services, Ltd	Managing Director	YouMe	Jeon
21	Lee & Ko	Partner	Jay	Shim
22	Merrill Lynch International, LLC Seoul Branch	Country Executive	SeungGu	Park
23	Morgan Stanley	CEO Korea	Steve	Han
24	P&G Korea	CEO	Balaka	Niyazee
25	Pfizer Korea	Country Manager	Dave (Dong-Wook)	Oh
26	Subway	Country Director	Colin	Clark
27	Suwon Youth Center	Head of Suwon Youth Center	Yoonjung	Choi
28	WeWork	General Manager	Matthew	Shampine

###

About Partners for the Future Foundation (PFF)
The Partners for the Future Foundati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February 2000 as a charity arm of AMCHAM Korea. The organization has been offering aid to unemployed families through programs such as scholarships, job training, and internships. The Foundation also offers various CSR programs partnering with corporates. In particular, the PFF's scholarship program has provided tuition for about 3,300 university students from unemployed families since the year 2000 and is making an effort to attract more individual and business sponsors. The PFF is promoting various everyday methods of participating in charity while using "Fun Fundraising" as its motto, hoping to aid in establishing a giving culture in the Korean society.

About AMCHAM Korea
AMCHAM Korea was founded in 1953 with a broad mandate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trad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MCHAM is the largest foreign chamber in Korea comprised of 800+ member companies and affiliates with diverse interests 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the Korean economy.

역대 최다 기업 CEO 참가, 암참 자선행사에서 웨이터로 변신

-제 15회 '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성료
-암참 역대 최대 수익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

2019년 6월 13일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지난 6월 11일 화요일 오후 콘래드 서울에서 제 15회 '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자선행사를 개최했다.

암참 회원사 CEO 및 대표들 28명은 암참의 연례 자선행사를 위해 호텔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서빙 교육을 받은 후, 일일 웨이터로 변신하여 초청한 자사 임직원과 손님들에게 저녁 식사와 음료를 서빙했다. 암참 산하 자선단체 미래의동반자재단은 2003년부터 매년 이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여 전 수익금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조성해왔다. 올해 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에는 총 28명의 CEO가 참석하여 암참 역사상 최대 참가자 및 수익금의 자선 행사로 기록되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올해 행사는 역대 암참의 모든 기록을 갱신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한국에 독특한 모금 활동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암참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행사를 통해 모은 약 7,100만원의 수익금 (CEO 참가비 및 식사비)은 미래의동반자재단에 기부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참석한 CEO는 아래와 같다.

No.	회사명	성함	직함
1	델 테크놀로지스	김경진	한국 총괄 사장
2	에이치피프린팅코리아	짐 노팅엄	대표이사
3	법무법인 광장	심재진	파트너
4	한국피앤지	발라카 니야지	대표
5	페덱스 코리아	채은미	대표이사
6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
7	한국아이비엠	장화진	대표이사 사장
8	제이씨데코코리아	김주용	사장
9	모간스탠리증권	한승수	대표

10	아시안타이거즈 트랜스팩	송정섭	대표
11	켈리서비스(유)	전유미	대표
12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김영목	대표
13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 사장
14	미래의동반자재단	제프리 존스	이사장
15	㈜제이에스매니지먼트	이진수	대표이사
16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	박승구	한국총괄대표
17	애트나 코리아 주식회사	데미안 델라니	대표
18	위워크	매튜 샴파인	제너럴 매니저
19	오비맥주	김종주	인사 부사장
20	써브웨이	콜린 클락	한국써브웨이 대표
21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 코리아㈜	브래드 벅월터	Johnson Controls Korea 사장
22	한국지엠주식회사	카허 카젬	사장 및 대표이사
23	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	제임스 박	사장
24	㈜ 코스트코 코리아	조민수	대표이사
25	씨비알이코리아	임동수	대표이사
26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주식회사	프란시스 반 패리스	대표이사 사장
27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최윤정	센터장
28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코리아	파블로 로쏘	사장

###

암참 미래의동반자재단

미래의동반자재단은 국내 실업가정을 지원하고자 2000년 2월 설립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산하 비영리 자선재단으로, 지금까지 실업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 직업교육훈련 지원프로그램,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등 다양한 실업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장학 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3,300여명의 실업가정 대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기업과 개인 차원의 후원인 모집에 힘쓰고 있다. 미래의동반자재단은 '즐거운 기부' 라는 모토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선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쉽게 기부문화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로, 한국 경제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800여 개의 기업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Media Coverage

The 15th AMCHAM CEO Servers' Night

Tuesday, June 11, 2019

Media	The Korea Economic Daily	Date	June 13, 2019
Title	자선 모금 나선 암참 회원사 CEO들 "장학금 모으려 15년째 '일일 웨이터' 봉사합니다"		
Link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1366771		
Source	Newspaper (A32) and Internet News		

자선 모금 나선 암참 회원사 CEO들 "장학금 모으려 15년째 '일일 웨이터' 봉사합니다"

지난 11 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제임스 김·송정섭·채은미 등
주한미국상의 CEO 28 명 참여

암참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선행사에 앞서 홀 서빙 교육을 받고 있다. /암참 제공

"음료를 따를 땐 손님의 오른쪽에 서야 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6층 스튜디오룸. 마크 미니 콘래드서울 총지배인이 서빙 예절에 대해 설명하자 웨이터 복장을 한 28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받아 적었다. 보통의 웨이터들과 다른 점은 'GE' 'IBM' 같은 글로벌 기업 로고가 박힌 흰색 앞치마를 둘렀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CEO 서버스 나이트'에서 음식료 서빙을 맡은 외국계 회사 최고경영자(CEO)다. CEO급 웨이터 28명은 한 시간 정도 음식 서빙 방법 등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

은 뒤 행사장에 투입돼 스테이크 접시를 나르고 와인을 따랐다.

'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는 암참 산하 자선단체 미래의동반자재단이 2003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연례 자선 행사다. 올해로 15회째다. 회원사 CEO들이 일일 웨이터로 변신해 자사 임직원과 초청 고객들에게 저녁식사와 음료를 제공한다. 수익금은 전액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에 쓰인다.

올해 행사엔 역대 최대인 28명의 암참 회원사 CEO들이 흰색 앞치마를 둘렀다. 작년까지는 암참 이사를 맡고 있는 CEO들에게만 서빙 기회가 돌아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행사 규모를 키우고 장학금을 늘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일반 회원사 CEO도 웨이터로 변신할 수 있게 됐다. 9년째 웨이터로 변신한 송정섭 아시안타이거즈 트랜스팩 대표, 8년째 서빙을 맡은 채은미 페덱스 코리아 대표뿐만 아니라 짐 노팅엄 HP프린팅 대표, 장화진 IBM 대표 등 16명도 웨이터 업무를 경험했다.

행사 손님도 늘었다. 작년까지 100~200명 남짓한 손님들이 CEO의 서빙을 받았지만 올해는 약 400명이 참석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사장이 38명의 손님을 초청했다.

이번 행사에서 수익금은 총 7,100만원이 들어왔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스테이크 등으로 구성된 음식과 와인 등 음료 매출, 참가비로 구성된다. 수익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은 "암참 역대 최대 참석자와 CEO들과 함께해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올해 행사는 역대 암참의 모든 기록을 경신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한국에 독특한 모금 활동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Media	Maeil Business Newspaper	Date	June 13, 2019
Title	암참 회원사 CEO·대표 자선행사서 일일 웨이터로 변신		
Link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13044/		
Source	Internet News		

암참 회원사 CEO·대표, 자선행사서 일일 웨이터로 변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지난 11일 오후 콘래드 서울에서 제 15회 `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자선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날 자선행사에서 암참 회원사 CEO 및 대표들 28명은 일일 웨이터로 변신해 초정한 자사 임직원과 손님들에게 저녁식사와 음료를 서빙했다.

이들은 사전에 호텔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서빙 교육을 받았다.

암참 산하 자선단체 미래의동반자재단은 2003년부터 매년 이 특별한 행사를 개최해 전 수익금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조성해왔다.

올해 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에는 총 28명의 CEO가 참석해 암참 역사상 최대 참가자 및 수익금의 자선 행사로 기록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올해 행사는 역대 암참의 모든 기록을 갱신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며 "한국에 독특한 모금 활동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암참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행사를 통해 모은 약 7,100만원의 수익금 (CEO 참가비 및 식사비)은 미래의동반자재단에 기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Media	Seoul Economic Daily	Date	June 13, 2019
Title	일일 웨이터로 변신한 암참 CEO… 서빙 수익금 전액 기부		
Link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EHM5DPP		
Source	Newspaper (A13) and Internet News		

일일 웨이터로 변신한 암참 CEO…서빙 수익금 전액 기부

콘래드서울호텔서 '서버스 나이트' 행사

일일 웨이터로 나선 프란시스 반패리스(왼쪽 세번째) 지이헬스케어코리아 대표가 식사 서빙을 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산하 미래의동반자재단이 지난 11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주최한 '제15회 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행사 수익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제공=암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글로벌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한 '제15회 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행사 수익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암참 산하 자선단체 미래의동반자재단은 지난 11일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이 행사에서는 암참 회원사 CEO와 대표 28명이 일일 웨이터로 변신해 초청한 기업 임직원과 손님들에게 저녁 식사와 음료를 서빙했다.

이 행사는 미래의동반자재단이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자선행사다. 올해 거둔 역대 최대 수익금 7,100만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올해는 암참 역사상 최대 참가자와 수익금을 거둬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한국에 독특한 모금 문화를 정착시켜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산하 미래의동반자재단이 11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주최한 '제15회 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행사에서 CEO들이 '일일 웨이터'로 변신하기 위해 서빙 관련 사전교육을 받고 있다. / 사진제공=주한미국상공회의소

Media	Yonhap News	Date	June 13, 2019
Title	**"웨이터가 된 CEO들"… 암참 자선행사 수익 장학금 기부**		
Link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021100003?input=1195m		
Source	Internet News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글로벌 유력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한 '제15회 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행사에서 모인 수익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암참 회원사의 CEO와 대표 28명이 '일일 웨이터'로 변신해 초청한 기업 임직원과 손님들에게 저녁 식사와 음료를 서빙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해 한승수 모건스탠리 증권 대표, 오동욱 한국화이자 대표이사,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제임스 박 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 사장 등이 동참했다.

Media	Digital Times	Date	June 13, 2019
Title	**"CEO들 웨이터로 변신"… 암참, 자선행사 수익 장학금 기부**		
Link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61302109957607010&ref=naver		
Source	Internet News		

"웨이터가 된 CEO들"…암참, 자선행사 수익 장학금 기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글로벌 유력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한 '제15회 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행사에서 모인 수익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암참 회원사의 CEO와 대표 28명이 '일일 웨이터'로 변신해 초청한 기업 임직원과 손님들에게 저녁 식사와 음료를 서빙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해 한승수 모건스탠리 증권 대표, 오동욱 한국화이자 대표이사,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제임스 박 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 사장 등이 동참했다.

암참 산하 '미래의 동반자 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거둔 역대 최대 수익금 약 7,100만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된다.